

완도에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들어선다

국비 52억 등 104억 투입 내년 준공...연구소·스타트업 등 40개소 유치

완도군이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건립에 나섰다. 완도군은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해양자유 블루존 조성사업의 핵심인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신우철 군수와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센터장, 김춘성 조선대학교 해양생물 연구센터장, 정규진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는 해양바이오 관련 국내외 대학·기업과 연구기관의 공동협력연구 공간을 마련해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부지에 국비 52억원 등 총 104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4247㎡ 규모로 건립된다. 2022년 준공 목표다.

완도군은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를 건립해 연구소 10개소, 스타트업 30개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럽 블루밸리파크 협력사업 등 해양바이오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조류 소재 R&D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 원료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



완도군은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신우철 군수와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완도군 제공>

협력연구소를 건립한다"며 "해조류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끌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담출판취재본부장 ejhung@

영암 전통시장 5곳 휴장 코로나 확산에 31일까지

영암군은 코로나19의 지역 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22일부터 31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5곳을 임시 휴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휴장하는 전통시장은 영암5일장(25·31일), 신북5일장(22·27일), 시종5일장(23·28일), 구림5일장(22·27일), 독천5일장(24·29일)이다.

휴장 결정 전에 시장 상인 의견을 참렷으며 시장별로 2회씩 휴장하고, 2월 초 설 대목장은 연다.

휴장 조치는 전통시장 장날에 모이는 장객과 노점상 상인 유입을 통제한다. 다만, 전통시장 내 상설점포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휴장 조치와는 별개로 영암군은 기존에 해오던 전통시장 내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진도군,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최대 50만원 지급

진도군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부터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행업 등록을 완료한 여행사이며, 사전여행계획서를 여행 7일 전까지 진도군 관광과에 내면 된다.

지원 기준은 내국인 15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수학여행단 50명 이상으로 진도군의 유료 관광지 방문과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이용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내국인 기준 1인당 당일은 5000원, 1박 1만2000원, 2박 이상은 2만원이 지원된다. 1회 지원 한도액은 최대 50만원까지이며, 수학여행단은 학교에 지급한다.

진도지역 유료 관광지는 진도타워, 운림산방, 해양생태관, 소전미술관 등이 있다. 올해 9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열리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진도전시관은 수목비엔날레기간이 2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료 관광지에 포함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시설 방역,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정정 관광 진도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진도군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사진은 진도 대표 관광지 운림산방. <진도군 제공>

영광 청소년단체 '청소년자람터 오늘' 미디어·IT 교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 꿈' 사업 최종 선정

영광군은 지역 청소년단체인 '청소년자람터 오늘'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하는 '2021 나눔과 꿈'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나눔과 꿈' 사업은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 공모사업이다. 비영리단체에 최장 3년간 최대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980여 단체가 신청해 최종 40개 단체가 선정돼 2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소년자람터 오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역량 강화 영상·미디어 교육 프로그램과 업체·인공지능(AI) 등 IT 교육, 온라인 마케팅 등 청소년 직업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올해부터 3년간 영광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콘텐츠 교육을 실시한다. 다음달 참여자들



영광지역 청소년단체 '청소년자람터 오늘'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과 꿈'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2억원을 지원받는다. <영광군 제공>

모집해 교육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규 '청소년자람터 오늘' 이사장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교육모델인 미디어 및 IT 역량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목포해수청, 서·남해역에 등대 8기 신설

국비 64억 투입... 드론 활용 항로표지사업도 추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서·남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과 사고 방지를 위해 국비 64억원 등을 투입해 등대 8기를 신설한다.

또 국비 2000만원을 들여 해상 무인등대의 기능 감시·정비를 위한 영상, 위치 제어, 정보 전송 기술 등이 탑재된 항로표지용 드론 2대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

등대는 항행하는 선박에게 불빛을 비추어 선박의 위치·방향 및 장애물 등을 알려주는 항행보조시설이다.

올해 새로 설치되는 등대는 선박의 통항량이 많고 강한 조류로 해양사고 우려가 높은 신안군 흑산

면(심리항 방파제 등대, 중태항 방파제 등대, 만제도 동방 등표), 신안군 안좌면-장산면(소도 등표, 팽진순은어 등표), 해남군 문내면(방만 등표), 진도군 조도면(독거도 등대), 완도군 청산면(여서도 등대) 등 총 8곳이다. 또 신안군 흑산도 사리항 입구와 완도군 보길면 북방해상의 수중암초 제거해 선박 운항 안전을 확보한다.

장규표 목포해수청장은 "등대 설치 사업과 선박의 항해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 등 위험요소를 찾아 제거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무안군, 작년 농산물 1112t 수출...매출 11억

양파·마늘·단호박 등 '효자'

무안군은 지난해 양파와 마늘 등 지역농산물 1112t을 수출해 11억1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무안군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내수 부진을 해외 수출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농협·영농법인과 협조체제를 구축, 농가와 업체에 수

출물류비 1억2500만원을 지원했다.

판로 개척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양파 792t, 마늘 120t, 버섯 91t, 양배추 63t, 단호박 36t, 김 10t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대 수출시장은 동남아시아와 대만, 홍콩으로 전체 수출물량의 91%를 차지했다. 일본과 미국에는 각각 무안김과 팽이버섯을 수출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